

마음 다루기 시지프스 마을에 첫눈이 내리고

특별히 먼곳도 아닌 그곳

| 강나경 |

마음의 환상을 넘어 생명을 발견한 한 사람의 시집을 소개합니다(편집자 주).



빈 저울



저울은 봄비다

시장 곳곳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두 눈길이

저울의 눈금 앞에서

초조히 봄비다

저울은 당당하다

거리 곳곳에서 마주치는 두 눈길이

재빨리 서로를 읽어내는 저울의 눈금 앞에서

저울은 무거울수록 당당하다

저울은 정확하다

물건을 값 지우고 사람을 값 지우는 저울의 눈금은

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말의 고장도 없이

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정확하다

그 의기양양한 저울의 눈금 앞에서

만나고 헤어지는 무수한 사람들이

순종의 미덕을 순순히

배우고 익히다

그러나 빈 저울은
바람 속에서 달랑이다
무게와 눈금을 초조히 사들이고 표표히 돌아가는
쓸쓸한 그림자들의 등 뒤에서
빈 저울은 봄비는 바람 속에서
울 울 춤추다

춤추다 허공 속으로
흘어지다

지혜로운 분별은 삶의 지팡이로서 필요하다.

그러나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, ‘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’ 우리들은 사방으로 잣대를 들이댄다. 마주치는 사람, 일, 상황, 심지어는 자신에게까지.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, 어느 게 선한지 악한지, 어느 게 귀한지 천한지, 어느 게 잘났는지 못났는지….

그리하여 서로의 이념이 갈리고, 신념이 갈리고, 인격이 갈리고, 성품이 갈리고, 나아가 자신마저 갈린다.

그러나 그 허약한 분리와 제한을 순순히 사들이고 돌아가는 쓸쓸한 그림자들의 등 뒤에서 바람속의 빈 저울은 달랑이며 춤춘다. 이원성은 균형을 유지하는 운동일 뿐이라며…, 둘로 나뉘어져 보이는 하나라며…, 균형은 비어있음이라며….

그러며 빈 저울마저 거두어간다. 허공 속으로….

이 글의 저자가 걸어온 길

길의 지도는 좀처럼 읽히질 않았다. 모르는 길도 가다보면 어느 한 모퉁이쯤에서 깜박이며 등불을 반짝여줄 줄 알았던 길은 그러나 좀체 그래주질 않았다. 그래서 나는 가는 듯 가는 듯 가고 있었지만, 정작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만 맴돌고 있었다. 둘러보면 그 자리, 가늠해보면 그 자리….

그 막막함과 목마름이 가슴까지 차올라왔을 때였을까. 그래서 해갈을 열망해오던 내 영혼의 북소리가 어느새 안개를 뚫고 내 발목까지 두드려왔을 때였을까. 길은 어느덧 방향을 틀고 있었다. 숨겨둔 소중한 길을 비로소 내보여줄 듯, 길은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나를 유인해가기 시작했다.

그러나 그 길은 내가 막연히 기다려오던 눈부신 외부로 향해있지 않았다. 오히려 그 길은 나를 내 안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기 시작했다. ‘나’를 만나기 전에는 내 길을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거라며, 내 남은 길들이 일제히 동의라도 한 것처럼.

그리하여 나는 어느새 ‘나’를 만나가는 여행길에 서있었다. 내 그리움의 정체를 기필코 밝혀내야 하는….

그런데 바로 그곳이었을까. 내가 그토록 기다려오던 길의 입구가… . 나는 그 어귀에 이르자 비로소 편안해지기 시작했다. 나를 이리 저리 끌고 다니던 고달픈 마음을 맘 놓고 쉴 수가 있고, 놓여나는 나를 맘껏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안심의 품에 이르자….

그래서 그 안온한 품속을 걸으며, 나는 서서히 느껴가고 있었다. 예의 그 안개와 막다른 골목이 다름 아닌 나였음을… . 비로소 만난 그 광대한 길이 본래의 나였음을… .

그 파스하면서도 부드러운 파도를 타고 상쾌한 산들바람 나부끼는 어느 한 능선을 넘어섰을 때였을까. 나는 그만 문득 마주치고야 말았다. 도화지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살아 움직이는 한 ‘생명’을. 끈질긴 땃줄이 문득 끊어져 중력의 굴레에서 얼핏 놓여난 한 ‘생명’을. 그 생생한 존재가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머물러 있는 ‘영원한 고향’을….

아, 그런데 그 특 트인 자리는 그 어떤 특별한 곳도, 먼 곳도 아니었다. ‘생각’에서 놓여난 한 순간, 생각이 푹! 끊어진 한 순간, 그 절대 고요에서 드러난 그저 선명한 자리, 그것일 뿐이었다. 내가 현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, 그 자리, 그 현실… 그것이 전부였다. ‘투명한 의식’으로 그 진실을 생생히 목격하며 거기 ‘있는’ 존재가 바로 ‘나’였다.

그리하여 보았다. 마음이라는 판도라상자의 명백한 내막. 우리들을 그토록 목마름으로 내몰던 그 모든 환상과 번뇌의 적나라한 정체. 그 시작과 끝. 그리고 그 상자 너머에서 비로소 열려있는 명료한 삶의 자리. 실존의 자리….


우리가 늘 당도해 있으면서도 당도해 있지 않은 그 자리. 우리가 단 한 번도 떠나있지 않았으면서도 언제나 떠나있었던 그 자리. 이러저러한 생각과 감정이 펼쳐내는 저 멀리 환상의 세계를 붙들고 있느라, 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놓여나기 위해 이러저러한 도구들을 붙들고 씌름하고 있느라, 언제나 더 나가 있던 호흡보다도 가까운 그 자리.

마음이 엮어내는 환상의 꿈길을 헤매다 누군가가 탁! 쳐주는 탁자 소리에 정신이 ‘번쩍’ 차려지며 돌아온 바로 그 자리. 깨어있는 ‘지금 이 순간’, ‘지금 여기’.

흔히들 인생은 무상하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무상하지 않은 그 자리. 그 모든 것이 생생한 모습 그대로, 있는 그대로 거기 있고, 자유자

재로 움직이고 있는 생생한 생명이 거기 있고, ‘지금 이 순간’의 삶의
마당이 오롯한 존재의 터전으로 펼쳐져 있는 그 자리….

그러니 내 그리움의 발길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. 그 등불이 환히
밝혀지던 그 순간, 나는 문득 그리움이 사라진 자리에 서있었으니. 내
청춘이 닳을 올리던 그 어느 날, 내 영혼의 그리움을 캐내며 내 가슴에
켜졌던 창공의 별빛은 결국 그 등불을 점화시켜온 불꽃이었으니….

그리하여 나는 이제 그 등불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. 그 등불이 밝
혀주는 길을 따라….(끝) 

- 이 글은 ‘시지프스의 마을에 첫눈이 내리고’에서 발췌하였습니다.
-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.

저자 | **강나경** |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으며, 현재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다.

추천도서 **마음에 닿은 책** Good Book

시지프스의 마을에 첫눈이 내리고

강나경 지음 | 출판사 에세이 | 정가 9,000원



이 책은 깨어남의 여정을 그린 노래이자, 우리 영혼의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그린 귀
환의 노래다. ‘시지프스’는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듯, 밀어 올리면 원점으로 굴러 내려오는 바
위를 끊임없이 다시 산 꼭대기로 올려야 하는 자, ‘일상의 굴레’를 사는 우리 인간을 가리킨다.
저자가 안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정, 그 자리에서 새로이 길을 열어가는 무한한 여백의 여정,
광활한 여정 중의 한 소박한 흐름을 하나의 원으로 밟아간 노래들을 담고 있다. 자신을 길러준
모든 길들의 교훈과 모든 길벗들의 아름다운 영혼이 담긴 ‘상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’, ‘열차
와 승객’, ‘선봉기와 수레바퀴’ 등의 시편들이 수록되어 있다.